

---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2024학년도 2학기 임시

일시 2024년 12월 13일  
오후 6시

장소 제1공학관 23219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대의원 총원 79명

참석 61명, 결석 16명, 무단결석 2명(생명과학과 회장 강신우, 건축학과 회장 전승훈)

(개회)

총학생회장: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인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긴급 소집한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대의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 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보고안건, 기타안건,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족수 확인 및 개회 선언입니다. 정족수 확인을 위해 대의원 명단을 바탕으로 출석 확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시 대답과 함께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소속과 직책은 생략하고 이름 석 자만 호명해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뒤로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인원을 확인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대의원 79명 중 61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57조제1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에 의거하여 본 회의는 18시 08분, 정상적으로 개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의원분들께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서기록 및 회의록에 기재될 예정이니 빠른 확인을 위해 발언 전에는 소속 및 이름을 반드시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즉, 출석인원이 40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으로 휴회됩니다. 회의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로 예상하니 참석해 주신 모든 대의원분들께서는 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학년도 2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자 제57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20학번 전형도입니다.

다음으로 서기단 소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사무총괄국장 내정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21학번 임성민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화학과 22학번 김민지입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안내입니다.

시간 관계상 총학생회칙 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관련 회칙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자료집이 현재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세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는 총학생회칙 제55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집된, 2024학년도 2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본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일 전인 12월 11일에, 제5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외 총학생회칙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세칙입니다. 본 회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세칙에 나와있는 회의 진행의 원칙과 의안 채택 방법 및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총학생회 대응 보고'입니다. 보고안건은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아니기에 총학생회 운영과 사업보고, 후원금 및 결산안 보고는 추후 25학년도 1학기에 있을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가가 혼란해짐에 따라 총학생회 측에서는 중앙운영위원들과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학우들을 대변하는 활동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에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 이상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가 이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당장 무엇인가를 반드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황 혹은 후속 조치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니, 후에 있을 기타 안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 용어가 생소하실 학우분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상설 의결 기구입니다. 이는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부 및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같은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말씀드리는 연석중앙운영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와 자연과학캠퍼스의 중앙운영위원회 모두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총학생회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부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서는 12월 4일 00시부로 연석 총학생회장단 4인이 함께 내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2월 4일 01시 01분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완벽한 계엄령 해제가 아니었기에,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그리고 학우 여러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논의하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4일 새벽 05시 03분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비록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으나,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4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서울 주요권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타 학교

의 의견은 어떠한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랜 시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는 어떠한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닐 뿐 학우 여러분들의 일상이 맞닿아있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규탄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학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만큼 단순히 총학생회의 의견만으로 규탄문을 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12월 4일 20시에 임시 제1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규탄문 작성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규탄문 초안 공유 및 수정 사항 수합, 규탄문을 발표할 이름의 형식 논의, 규탄문 작성 의결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규탄문 작성 의결'에 출석 21개 단위 중 찬성 21단위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가결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4일 21시 36분부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규탄문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던 중,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과대학 등 학우 여러분이 대자보를 붙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또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함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12월 9일 19시 10분경 임시 제2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시 제2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요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 공동 선언문 작성에 관한 건'에 출석 23개 단위 중 찬성 23단위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학생사회 시국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각 캠퍼스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에 관한 건'에 출석 23개 단위 중 찬성 23단위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2월 11일 22시경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 시국선언문'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국과 해당 사안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 안건 상정 및 가결하여 규탄문을 쓰고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으나, 이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필요성을 느꼈고, 해당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의결하는 것이 아닌, 대표자들이 모여 지금까지 중앙운영위원회의 대응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결기구로서의 자리가 아닌, 각 단위에 맞닿아있는 분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안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에 관련한 내용이나 과정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안건에 기초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대응방안 등의 질문은 기타 안건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안건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학생사회 시국 대응 방안 논의, 등록금 인상 대응을 위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안'입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한 학생사회 시국 대응 방안 논의'입니다. 발언하고 싶은 분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은 '등록금 인상 대응을 위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안'입니다.

현재 본교는 1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학교 본부는 오르는 연구비용,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지속된 등록금 동결은 학교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2023년도에는 17곳, 2024년도에는 26곳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며 등록금 인상의 흐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에서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해 왔던 것은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시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국가장학금 유형2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국가장학금 수령보다 등록금 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학우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원활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방학 중으로 한 번 더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기타 안건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분들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측과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부학생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등록금 인상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아직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추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학교들의 추이를 지켜보았

을 때 우리 학교 역시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의 학생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대의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중앙집행위원회 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 해드립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18시 24분 기준 폐회되었 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